

4대강 살리기 이후 하천이용 활성화방안



강 주 엽 ▶▶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장
ilovekorea319@gmail.com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하천의 이용은 생태환경 보전, 수질보전 등 환경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 들어가며

우리 강을 강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창 마무리중이다. 이러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우리 강은 이·치수 기능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강 중심의 관광·레저기반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4대강 내 총 139km²의 강변 생태공간이 새롭게 조성되었고, 16개 다기능 보 상류 125km²의 수면을 포함하여 총 283km² 수면이 형성되었다. 특히, 16개 다기능 보는 수려한 조형미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1,592km의 자전거길도 4대강 36경과 어우러져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하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강의 변화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전통적인 물 공급, 홍수예방 뿐만 아니라 휴식, 레저, 관광, 문화 등 하천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계기로 강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이미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이러한 보다 적극적인 하천의 환경친화적 이용은 친수구역 개발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

2. 국내외 하천이용사례

1) 국내사례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하천 이용사례는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하겠다. 회복과 창조의 기조하에 8대 과제, 5개 분야,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이중 1단계로 지난 2010년까지 5개 분야, 24개 사업이 완료되었다. 그 결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강 이용객수는 51,032천명에서 59,264천명으로 16% 증가하였고, 만족도도 71%에서 88%로 증가하였다. 생태환경지표 역시 개선되어 2등급 비오톱이 28% 증가하였고, 맹꽁이 개체수도 증가하여 약 1천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측면에서 하천복원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울산의 태화강이다. 태화강은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총 10년간 2,374억원을 투입하여 태화강을 복원하였다. 그 결과, 현재 태화강 수질은 BOD 기준 1996년 6등급에서 2009년 1등급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십리대숲 주변 생태공원, 자전거길 조성 등으로 주민편의도 크게 증진되었다.

2) 해외사례

해외 선진국은 현지 여건에 맞게 하천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도시 및 산업지역은 하천 생태공원 조성, 각종 레크레이션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도시 내 부족한 여가 및 친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경제 및 산업 낙후지역은 캠핑장, 레프팅, 카누, 낚시터 등 다양한 상업 및 수익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자면, 영국 런던의 템즈강은 20세기 중엽부터 템즈강의 치수성, 접근성을 개선하고 레저 및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템즈강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템즈강 주변 오픈 스페이스 확충, 런던아이, 밀레니엄 브리지 등 강변 랜드마크 도입, 테이트모던 미술관 등 문화시설 확충 등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오사가 요도강의 경우, 지난 1972년부터 오사카 도심을 통과하는 요도강을 자연지구, 생태광장지구, 시설광장지구, 경관보전지구 등 4개 지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특히, 도심 인근에는 생태공원 및 야구장, 골프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현재 연인원 500만명이 이용중이다.

또한, 스페인 빌바오 네르비온강의 경우 80년대 산업침체 등 경제적 난관 극복 및 도시 재창조를 위하여 지난 90년대부터 '리아2000'이라는 네르비온강 종합개발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체계를 개편하여 수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구겐하임 미술관 등 네르비온강 주변을 대규모 문화단지로 조성하여 현재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였다.

외국의 경우, 사업추진방식도 공공기관에 의한 직영, 민간위탁, 민관협력(ppp)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캠핑장, 주차장 등 소규모 공익사업은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마니라, 수영장 등 대규모 자금과 전문성을 요하는 수익사업은 민간위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토지 장기임대, 보조금 지급 등도 시행중이다.

3. 하천이용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먼저 이용도가 높은 곳을 친환경적으로 중점 이용하고 나머지는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개 다기능 보 상류 등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한 곳 등을 계획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태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히 보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 이용과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둔치와 수면 등 하천이용과 관리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하천이용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수요를 감안하고, 공간적·시간적으로 입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하천 밖의 친수구역 개발계획과도 연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등 재원조달계획도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하천이용은 지역주민, NGO 등 각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획단계부터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유역발전협의체를 설치 운영하여 공생발전의 새로운 모범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세부 추진방안

첫째, 하천이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선 하천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하천은 물의 취수, 홍수배제 등 이·치수 기능이 강조되어 왔고, 친수 등 하천이용측면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변화된 시대여건에 맞게 하천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유형별 구체적인 하천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천이용 수요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 하천 법령은 포괄적인 허가시 고려사항과 금지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수립 제시하되 수면 및 둔치 등 복합 개발사업과 수질 등 환경분야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국가 허가사항에 대한 구분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일상점검과 불법행위 감시체계 강화 등 유시관리대책도 꼼꼼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별 하천이용 마스터플랜 수립이다. 국내외 하천이용 사례는 지자체의 강한 추진의지, 현지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계획을 성공요인으로 시사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지역수요, 하천관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고, 수익·비수익사업의 시·공간 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블록정다수를 위한 비수익성 공공사업이 우선 추진되고, 대자본·고수익의 상업적 수익사업은 시차를 두는 전략 등이 필요하다. 다만, 지역수요, 현지여건, 지자체 재정여건, 공익사업과 수익사업간 연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은 휴식·레저공간, 비도시지역은 지역경제를 위한 수익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익사업은 수요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도시지역이 유리하고, 비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음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규모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 아이템이 많고 규모가 큰 개발은 종합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시 하천관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가 곤란하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관계부처 협

의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셋째, 유역별 유역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관련이다. 유역내 이수, 치수, 수질 등 각종 물문제 해결과 하천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상하류 지자체 및 NGO까지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현행 국토해양부 중심의 유역관리협의회, 환경부 중심의 수계관리위원회는 각각 수량과 수질문제로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물 문제의 포괄적 논의를 위하여 유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NGO 등 물관리 기관 및 단체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4. 맺으며

과거 하천은 이수 및 치수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이용측면에서는 다소 제한적으로 관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한은 그 본래의 목적은 충족시켜 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천이 시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하천을 잘 관리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들이 하천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오래된 고택도 바리케이트를 치고 외부접근을 막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실제로 사람이 거주토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관리법이라고 하지 않던가. 더 많은 시민들이 하천에서 레저, 휴식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천관리는 더 업그레йд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기반위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NGO 등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